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9 호

2021년 5월 17일

### - 목 차 -

#### ■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2.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토론회 안내 (5/25)
3. P4G 부대행사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a 1.5°C and net-zero future> 안내 (5/28)
4. 반기문 ESG 아카데미 개강식 결과 공유 (5/12)
5.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공유 (4/30)
6. Monthly Insight 5월호 주요 내용 소개

#### ■ 본부 소식

1. 유엔 지도자들,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의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2.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 [SDGs 솔루션] 스칸디나비아 목재 잔류물로 만든 첨단 바이오 연료

## ■ UNGC 회원 뉴스

1. 포스코, 공급사 선정 때 ESG 고려...친환경 구매도 2 배 늘린다
2. SK 하이닉스, 작년 사회적 가치 약 5 조 창출 "ESG 강화"
3. CJ 대한통운, 'ESG 위원회' 설치...사외이사 전원 참여

##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 협회 소식

###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 프로그램(TGE) 2 차 라운드 등록 시작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성의 비즈니스 리더십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녀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면 257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진전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성 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UNGC 회원사를 TGE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TGE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기업이 성 평등 지지 약속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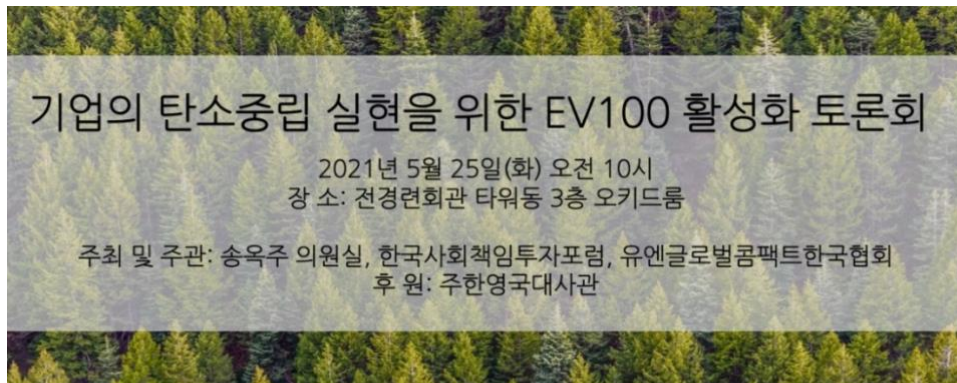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TG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과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야심차고 현실적인 기업 목표 설정
- 성평등 학습 기회 참여와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한 자사의 성 평등 현황 파악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 평등 전략 수립
- 자사 여성 임원 및 성 평등 사례 소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TGE는 성평등에 관한 글로벌적 시각과 지역 정보, 파트너 및 실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더 알아보기](#)

## 2.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토론회 안내 (5/25)



수송은 주요 온실가스 감축 부문 중 하나로  
 환경부는 기업의 국내 사업장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0 무공해차 전환 100」을 성공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부의 노력을 글로벌 범위로 확장하고자  
 국내 기업의 EV100 참여를 활성화하여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송옥주 의원실이 함께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EV100 활성화 토론회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프로그램

시간	내용	인사
10:00-10:15	축사 및 사진촬영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장관(환경부) 양훈승 상임이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권춘택 사무총장(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헬렌 클락슨 최고책임자(The Climate Group) 사이먼 스미스 대사(주한영국대사관)
10:15-10:30	발제1(EV100 소개 및 국내외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송부문 기후변화 대응 동향)	김태한 책임연구원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0:30-10:45	발제2(국내 수송부문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김효정 과장(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패널토론 좌장 양훈승 상임이사(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10:45-11:50	친환경차 전환에서 겪는 어려움 및 해결방안 논의	대한상의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한국교통연구원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11:50-12:00	질의 응답	-



\*본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석을 원하시는 기업은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아보기

### 3. P4G 부대행사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a 1.5°C and net-zero future> 안내 (5/28)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와 WWF,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이 공동 운영하는 CoREi (Corporate Renewable Energy Initiative) 이니셔티브가 2021 P4G 서밋의 일환으로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 Zero Future> 를 개최합니다.

CoREi 는 지난해 유엔글로벌컴팩트 한국협회 WWF, Kosif,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재생에너지 사용확대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전환 선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이니셔티브입니다.

금번 P4G 부대행사는 Race to Zero, SBTi 등 주요 글로벌 기후 이니셔티브 전문가를 초청해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과 환경적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순 배출 제로 (net-zero) 및 RE100 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선언한 기업들의 기후행동 비전과 전략이 공유될 <Sustainable Businesses Towards 1.5°C and Net- Zero Future> 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간		프로그램
10:00-10:05	5'	Business Session Opening
10:05-10:50	45'	<b>기후 이니셔티브 관계자 발표</b> - SBT & Race to Zero (20') Heidi Huucko, Senior Manager, Government Affairs & Environment and Climat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 CoREi (15') 이성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연구원 - Q&A (10')
10:50-11:30	40'	<b>기업 사례 발표</b> - 글로벌 기업 사례 (15') IKEA (TBD) - 국내 기업 사례 (15') SK 텔레콤 SV추진단 신성남 매니저 (TBD) - Q&A (10')
11:30-12:10	40'	<b>글로벌기후이니셔티브 패널토론 및 Q&amp;A</b> Moderator: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상임이사 - REBA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미국 - CBH (Climate Business Hub) 중국 - CoREi



[더 알아보기](#)

#### 4. 반기문 ESG 아카데미 개강식 결과 공유 (5/12)

### 반기문 ESG 아카데미 개강식 결과 공유

2021년 5월 12일

일시: 2021년 5월 12일 (수) 오후 6시~9시

장소: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3F)

지난 5월 12일(수) <반기문 ESG 아카데미>가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 보다더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 연세대학교가 공동 주관하는 금번 반기문 ESG 아카데미는 총 21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며, 개강식을 시작으로 총 11주 동안 매주 화요일, ESG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과정이 진행됩니다. 본 개강식에는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대화를 포함해, 감사진 소개 및 기업들의 아카데미 참여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 참여 기업(가나다 순): 농협은행, 동아쏘시오홀딩스, DGB금융지주, 롯데호텔, 만도, SK건설, SK텔레콤, LG이노텍, 유한킴벌리, 인성D&C, GS건설, GS칼텍스, KT, 포스코, 한국공항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투자금융지주, 현광토건(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공동 주관 세 기관 및 참여 기업 대표

#### 1. 인사말

개강식은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은 개강식의 모든 참석자를 환영하며, “단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ESG 내재화가 내포하는 의미와 이유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근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청사진을 그려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반기문 ESG 아카데미를 통해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이 근본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세계적인 ESG 리더로 발돋움하는 디딤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춘택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



반기문 ESG 아카데미 개강식 현장



이동건 UNGC 한국협회 회장



## 2. 반기문 총장과 대화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겸 UNGC 한국협회 명예회장은 먼저 강연을 통해 ESG를 기반으로 세계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ESG의 거대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선진국 및 글로벌 기업들이 ESG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기업들 역시 ESG를 중요시하고 내재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ESG를 지속적인 패러다임으로 예상하며, 그 이유를 △ 시대적인 가치 △ 책임투자원칙(PRI)을 기반으로 한 ESG 투자 확대 △ 기후 위기 △ 젊은 세대의 요구 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번 아카데미가 임원과 실무진이 함께 수강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만큼,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ESG 경영 내재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전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반기문 사무총장과의 대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과 현장에 나온 질문을 토대로 지금까지 반기문 사무총장이 국제사회에 기여해 온 실질적인 경험과 현재 글로벌 정세에 대한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여성역량강화를 포함한 인권 증진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하며, 현장에 참석한 기업 및 기관들의 향후 ESG 실천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과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전 사무총장

## 3. 참여 기업 소개 및 네트워크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 및 기관들이 순차적으로 자사 소개 및 반기문 ESG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원 및 실무진들은 반기문 ESG 아카데미에 갖는 큰 관심과 기대를 공유하며, ESG 내재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다양한 참여 기업 및 기관들과 자유롭게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기문 ESG 아카데미>는 오는 5월 18일 화요일 첫 온라인 세션을 진행합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두일 연구원(T. 02-749-2149)

더 알아보기

## 5.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 (4/30) 결과 공유

### 2021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보고

2021년 4월 30일

일시: 2021년 4월 30일 (금) 오후 2시~5시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처 회의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4월 30일(금) 회원사 대상 2021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28개 기관이 참석한 본 실무그룹은 국가인권위원회 윤석민 기업과 인권 전문관의 인권 경영 법제도 동향, 시사IN 전혜원 노동 건강권 전문 기자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ESG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인권 경영의 주요 이슈와 흐름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참석 기업 및 기관의 인권 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 기관(가나다 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동아쏘시오홀딩스,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만도, 법무법인 지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포스코,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G전자

#### 1. 인사말

회의 시작에 앞서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은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인권이 ESG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 실무그룹은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동료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UNGCs, OECD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지속가능경영,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의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각자의 기업에서 인권 경영 환경이 자리잡는데 일조해주시기를 바란다” 며 참석한 회원사들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국민권익위원회 윤석민 전문관



시사IN 전혜원 노동 건강권 전문 기자

#### 2. 발표

1부 세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윤석민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글로벌 기업 인권 동향 및 국내 인권경영 추진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과 인권의 배경과 더불어 올해 시행 예정인 △EU 기업실사의무화법(전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거버넌스 실사 의무화)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실사의무화법도 소개했으며,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EU의 ESG 비재무정보공시 의무화 지침과 규제 사례 △TCFD 기후관련 공시 △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주도로 확산된 공공기관 인권경영 흐름 등을 ESG 동향과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전혜원 시사IN 기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그리고 인권경영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는 △영국 기업살인법 제정 경과 △한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내용, 제정 경과 및 의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등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ESG중 'S'를 기업활동에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핵심이며, UNGC 인권 원칙에 따라, '기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기업활동을 개선하며, 이 과정을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질의 응답 시간에는 △민간기업에 인권위의 인권경영매뉴얼 권고의 영향 △중소/중견기업 안전관리비용 이슈 △알리오 공시 변화 관련 인권위 차원의 인권영향 평가 지표 등 매뉴얼 발표 계획 여부 등 평소 인권경영 실무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강호동 부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실장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 현장

### 3. 기업과 인권 대응 현안 공유

2부 세션에서는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참석 기업들의 기업 인권 대응 현안 공유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기업은 현재 자사의 인권 경영 관련 활동과 인권 경영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올해 1)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2)공급망 내 인권 가치 창출 3) 지역사회를 위한 인권경영 강화 목표로 활동 예정 **△LG전자** 경영이념 기반으로 CSR 방침 제정 예정, 자사 및 협력회사 대상 기업 근로자 인권 실사 예정, 현재 국내 센터에서 협력사 대상으로 점검 활동 중 **△한국석유공사** 인권경영체제 소개, 2020년도 인권 경영 추진성과 소개 및 인권의식 대내외 확산 위해 자회사 근로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인권경영 체계 및 문화 공유, 대외 협력 예정 **△만도** 사전 예방 시스템 보완, 하반기 인권경영 리스크 평가 실행 예정; 한라그룹 인권경영 선언문 통해 의지 표명 및 자체 실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평가 진행 예정 **△한국환경공단** '포용하는 인권경영' 슬로건으로 2021년 연간 인권경영 추진 예정 및 협력 업체 인권 경영 확산 노력 예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년 인권 특히 인권역량평가 통해 도출된 개선점을 단, 중장기로 나눠 매해 모니터링 시행 및 각 부서와 소통 협력; 2021년에는 인권 인지도수 향상 위해 라운드테이블 마련 예정 및 공공기관 및 문화예술계 협력 강화하고 인권문화 확산 **△한국가스기술공사** 2021년 찾아가는 교육 진행 예정; 신고상담센터 설치, 침해 대응 모의 훈련, 구제절차 개선 및 구제 가이드라인 강화 예정 **△한국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함께 참여 및 실천하는 인권 경영 강화 노력 예정 **△한전KDN** 평가를 위한 인권 경영이 아닌 직원 인식 개선이 목표, 진정한 인권 존중문화 확산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대

이번 미팅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강호동 부장**과 **LG전자 홍해현 선임**이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과 함께 2021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동 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UNGC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6월경 2차 미팅을 갖고, 기업과 인권 역량 강화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회원사는 추가 문의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 (T. 02-749-2149)

## 더 알아보기

### 6. Monthly Insight 5 월호 주요내용 소개

## [Monthly Insights 5 월호]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위한 인권노동의 방향성!

2021년 5월호의 주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이번 Monthly Insight에는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서약, UNGC 그릿 캐탈트 (Griet Cattaert) 노동 총괄 책임과 줄리 코포드 (Julie Kofoed) 인권 총괄 책임의 인사이트, 하버드비즈니스리뷰에 실린 "지속가능한 공급망" 보고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인신매매 종식에 관한 얼라이언스 8.7의 보고서 소개와 벡트라 인터내셔널 수석 고문 겸 국제 무역, 인권 변호사 베로니카 루비오 (Veronica Rubio)와의 인터뷰,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전과 보건 개선 방향,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리포트 소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ESG)에 대한 최신 동향, Gender Equality Korea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의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 <주요 콘텐츠>

#### 1.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서약



이번 먼슬리 5월호에서는 UNGC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서약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규모와 산업을 불문하고 운영 및 공급망에서 아동 노동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에 아동노동 실사를 도입하기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하거나 이해당사자 접근 방식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여 실사, 교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는 등의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서약은 국제노동기구와 얼라이언스 8.7 (Alliance 8.7) 가 주관하며, 유엔글로벌콤팩트와 협력하였습니다.

## 2. 전문가 인사이트



이번 전문가 인사이트는 하버드비즈니스 리뷰가 다룬 <지속가능한 공급망>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은 다국적 기업들이 하위 공급 업체의 관행들로 인해 기업들이 심각한 재정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문제점 △우수 사례 △직접적 접근법 △간접적 접근법 △집단적 접근법 △글로벌 접근법 △개선점 △결론의 구성을 통해, 다국적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서 공정한 노동 관행과 환경적 책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조달 담당자들에게도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목표 추구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조하였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인신매매 종식"**  
**"Ending Child Labour, Forced Labour and Human Trafficking in Global Supply Chains"**

얼라이언스 8.7 (Alliance 8.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지구촌은 아동 노동을 2025년까지,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를 2030년까지 근절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1억 5천 2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2천 5백만 명의 성인과 어린이들이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세부목표 8.7은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얼라이언스 8.7 액션 그룹(Alliance 8.7 Action Group on Supply Chains)'의 주도로 발간되었으며, 국제기구들(OECD, ILO, IOM, UNICEF)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망에서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해 글로벌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 착취 현상에 대한 추정치를 최초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얼라이언스 8.7 이 지난 해 발간한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인신매매 종식> 보고서를 발췌 및 번역하여 제공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에서의 경제 노동 근절을 위해 글로벌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 착취 현상에 대한 추정치를 최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과 권고사항은 다음 4 가지 주요 우선순위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문제를 전체 공급망에 대한 접근방식으로 조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한 공공 조치 (public measures) △기업 경영 및 환경을 규제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노동권 및 인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업 경영.



**착취 없는 무역**

베로니카 루비오

벡트라 인터내셔널 수석 고문 겸

국제 무역, 인권 변호사와의 인터뷰

다음으로 베로니카 루비오 (Veronica Rubio) 수석 고문 겸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인권실사의무화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의 작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주체가 민간부문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인권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특히 국가는 인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4. 본부소식



#####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논의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최대 연례 행사가 개최됩니다!

[등록 바로가기](#)



##### [UNGC 아카데미 세션]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전과 보건 개선 방향

본 아카데미 세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개선하는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본부 소식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최대 연례 행사, 2021 리더스 서밋 안내와 새로운 아카데미 세션 <글로벌 공급망에서 안전과 보건 개선 방향 (How to Improve Safety and Health in Global Supply Chains)> 이 소개되었습니다.

#### 5. 발간물 소개





[국내 동향] 2020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국내 성평등 동향



[글로벌 동향] 해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반부패 동향] 2020년 부패인식조사(CPI)  
글로벌 하이라이트



[주요국 부패 관련법] 유럽연합 내부고발지침  
(EU WHISTLEBLOWING DIRECTIVE)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Gender Equality Korea(GEK)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콘텐츠가 소개되었습니다. GEK 는 2020 지속가능발전보고서를 통해 국내 성평등 동향을 다루었으며, 해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BIS 는 2020 년 부패인식조사 (CPI) 글로벌 하이라이트와 유럽연합 내부고발지침을 소개했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부 소식

### 1. 유엔 지도자들, 해운공급망 의존 기업들의 선원 권리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인권사무소(UN Human Rights Office),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포괄적인 인권 체크리스트를 2021년 5월 6일 해양 산업 관련 기업들에 전달하였습니다. 본 체크리스트는 새로운 COVID-19 변이 바이러스와 각국 정부가 시행하는 여행 제한 조치로 인해 발이 묶인 선박들의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주 및 용선주를 위한 본 인권 실사 툴의 제작은 COVID-19 제한 조치로 계약 만료 후에도 해상에 일하고 있는 선원들이 현재 2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해상 '선원교체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40만 명의 발이 묶였던 2020년 9월의 수준으로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추진되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이 새로운 지침이 선원들의 근로 조건 향상과 인권이 존중되고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선원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가정에 대한 권리, 이동의 자유와 같은 분야에서 그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기구들은 세계 무역 상품의 80% 이상을 운송하는 해양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LO의 해사노동협약(MLC)이 규정한 최대 선원 승선 근무기간인 11개월을 초과하며 근무하는 선원들의 실태가 담긴 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또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선원 교체가 예정된 선박이용을 꺼린다는 보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일부 기업은 용선 계약서에 '선원교체 금지 ('no crew change' clauses)' 조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필수적인 선원교체를 막고, 해양산업계에 대한 압박이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기구들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GPs)'에 따라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그들의 가치 사슬 내 노동자인 선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켜 왔습니다.

새로운 인권 툴은 750여 개 기업이 서명한 '선원 웰빙에 관한 '넵튠(Neptune) 선언'과 같이 현재 업계 주도하에 운영되는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보완합니다. 본 인권 툴은 선주와 용선주, 물류 공급자가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 실사를 수행하여, 코로나 19 위기의 영향을 받는 선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식별, 방지, 완화 및 해결할 수 있는 지침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산다 오잠보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선원들이 엄청난, 그러나 대체로 보이지 않는 고난과 고통에 계속 직면함으로써,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점을 부각시켰다. 해양 산업은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선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복지가 우선시되어야 하며, 본 인권 틀이 해양 산업의 인권 유린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틀은 해양 근로자를 실사 체계 구축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정적인 인권 영향을 확인, 방지, 완화 및 해결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라이더(Guy Ryder) ILO 사무총장**은 "지난해 12 월 ILO 전문가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2006 년 마련된 어선원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의 보호 범위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MLC 가 최소한의 선원 권리 보호 기준만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ILO 는 정부에게 선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해왔고, 기업들이 이러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기택(Kitack Lim) IMO(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선원들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에 있지만 코로나 19 여행 및 이동 제한 조치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선원들이 송환과 선원 교체, 상륙 허가를 거부당하고, 결국 계약 기간을 훨씬 넘어서는 기간 동안 강제로 배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선원의 권리 보장은 전체 공급 및 물류 체인에 걸쳐 해상운송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본 인권 틀은 선주, 용선주 및 물류 공급업자가 선원들의 인권을 고려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상품을 전달하기 위해 일하는데 있어 선원들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중대한 발전" 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코로나 19 선원 교체 위기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 중 하나에서 발생했다. 이는 수천 명의 해양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주의적 인권 위기이며,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모든 기업이 이 위기와의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기업이 위기 상황에 개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이 플라튼(Guy Platte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수에즈 운하 사태는 글로벌 해운이 정부와 시장의 공급망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일깨워주었다. 선원들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제 무역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수에즈 사건은 이미 심각한 선원 교체 위기를 악화시킨 것이다. 수에즈 운하가 재개된 지금 선원들의 노고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우리는 기업에 중요한 권고안을 시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코튼(Stephen Cotton) 국제운송노동자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사무총장**은 "해상운송은 너무 오랫동안 글로벌 브랜드의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오늘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은 자사와 공급망 내 협력자들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기를 원한다. 선원 교체 위기 속에서 해당 인권 톨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 해당 톨은 기업이 공급망 내 선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급업체 및 용선주해야 확인해야 할 질문을 담고 있으며, 위반이나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로자 주도의 모니터링 및 시행 경로를 제공한다. 국제운송노동자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기업과 인권연구소(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Business), 라프트 인권재단(Rafto Foundation for Human Rights)과 OECD 가 함께 본 톨 개발에 적극 기여했으며. 지속가능한 해상 운송 이니셔티브(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Ethical Trading Initiative) 및 국제소비재 포럼(Consumer Goods Forum)이 지원했다. 해당 기관들은 코로나 19 에 따른 선원 교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이니셔티브의 출범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소비재 포럼(Consumer Goods Forum)의 와이 찬찬 (Wai-Chan Chan) 상무 이사는**

"국제소비재 포럼은 바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긴급 지원하는 새로운 톨을 환영한다. 우리 이사회가 지난해 가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쓴 서한의 내용과 같이 코로나 19 사태는 해양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기여에 차질을 빚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현대적 형태의 강제노동을 만들어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친 모든 행위자가 협력적이고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지지한다."

#### **요한나 크리스텐슨(Johanna Christensen) 글로벌 해양 포럼(Global Maritime Forum)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책임자/관리 이사는** "우리는 전 세계 바다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적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 선원 웰빙과 교체에 관한 넵툰 선언(Neptune Declaration on Seafarer Wellbeing and Crew Change)을 제정한 한 일원으로서 우리는 본 인권 실사 톨을 환영하며, 안전 및 생계에 있어 극심한 위험을 계속해서 마주하는 160 만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마르기 반 고흐(Margi Van Gogh)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공급체인 및 운수업계**

**대표**는 "코로나 19 는 운수업 종사자와 선원들이 국제무역과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부각하고 있다. 공급 시스템의 회복탄력성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 걸친 협업과 우리 모두 의존하는 필수 물품과 식품 운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웰빙, 인권을 보장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선주와 용선주, 물류 공급자가 선원의 인권 보호를 보장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구성된 귀한 가이드스 톨을 만들어낸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업에 박수를 보낸다. 본 가이드스 톨은 선원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 운송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래에 있을 위험을 완화하고, 사람과 상품이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단지 의무를 넘어 비즈니스 연속성과 지속가능한 글로벌 회복에 필수적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스티븐스(Anderw Stephens) 지속가능한 해운 이니셔티브(Sustainable Shipping Initiative) 전무이사**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그에 따른 선원 교체 위기는 선원들이 병원, 약국, 소매 및 식품 체인점의 공급자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동시에 전세계 선원들의 노동권과 인권에 대한 많은 리스크도 분명하게 보여줬다. 본 실사 툴을 통해 선주와 용선주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운송 이해관계자들이 이 위기로 인해 악화된 노동 및 인권 위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식별 및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인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과 대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매캘리스터(Peter McAllister) 윤리무역이니셔티브 (Ethical Trade Initiative) 전무**는 "선원들은 해운업계의 착취적 관행을 수면 위로 드러낸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의 희생자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 및 국제해운회의소(ICS)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마련된 선원 대상의 체크리스트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는 선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해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이 본 인권 툴을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습니다.

[더 알아보기](#)

## 2.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021 리더스 서밋,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가 참가하는 금년 최대규모 행사

- **일시:** 2021년 6월 15-16일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조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 **프로그램:** [링크](#)

UNGC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UNGC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더스 서밋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UNGC는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진전 상황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며,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독려할 것입니다. 전략적 공동노력에 대한 포부를 높이고, 공정성과 탄력성을 갖춘 세상을 재건하려는 수천 명의 글로벌 리더와 SDG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제 (Themes)

이번 서밋에서는 다섯가지 주요 이슈와 더불어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노동자 권익,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 주요 행사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는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과 함께 26 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와 지역별 분과 세션, 공연, 전시회 및 상호간 네트워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 26시간 동안의 콘텐츠

글로벌 리더들은 총회와 분과세션에서 자신의 인사이트와 SDG 구현 사례 및 공동노력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을 이끄는 유엔과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 파빌리온

리더스 서밋 파빌리온(Leaders Summit Pavilion)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파트너들이 SDGs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관련 영상 공유 및 세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 네트워킹

미래를 이끄는 수천 명의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협력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1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SDGs 소식

###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2. UNGC 가입: 2018. 5. 1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 R&D 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2009 년 개원하여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지원으로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0 년에는 산업핵심, 소재부품 등 85 개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정부 R&D 예산의 8.43%인 2 조 405 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관리 및 성과확산까지 산업기술 R&D 프로세스 전주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R&D 언택트 평가

KEIT 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R&D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R&D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비대면 평가도입

코로나 19 확산 지속 및 전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기존의 대면 평가위원회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R&D 지원의 연속성을 위해 온라인 전자평가 중심의 '언택트(비대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언택트 평가」는 평가위원이 사업계획서 목표 및 연구내용 등을 온라인 전자평가 시스템을 통해 검토한 후,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평가 결과를 판단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언택트 평가 절차>

절차	검토 내용	주체
1차 질의/응답 (온라인)	사업계획서 검토 및 1차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답변서 작성(보완/증빙자료 첨부)	피평가자
2차 질의/응답 (온라인 또는 화상)	1차 질의답변 검토 및 2차 질의서 작성	평가위원회
	답변서 작성(보완/증빙자료 첨부)	피평가자
종합의견서 작성	필요 시 평가위원간 토론을 위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평가지표에 따라 의견 작성	평가위원회



### 보안 대비

언택트 평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문제를 예방하고자 시스템 오픈 시간을 지정·운영하고(07~22 시), 평가위원 2 차 인증절차 마련,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평가위원 행동강령 및 보안서약서 명확화, 유출방지(스크린샷/녹화 등) 시스템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 선별 적용

언택트 평가는 상반기 예산 지원이 시급한 계속 과제, 수행기관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단독응모 과제에 우선 적용하고, 집중토론이 필요한 대형과제는 평가위원만 소집(평가위원회↔신청기관 화상회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철저한 방역

KEIT 는 평가위원 등 모든 외부 방문자에 대한 4 단계(열화상 카메라→ 체온계 체크→ 건강 모니터링(QR 코드 관리)→ 손 소독 후 출입)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콜센터 코로나 19 대응지침(고용노동부, '20.3)을 준용하여 평가장 내 비말 감염방지를 위한 투명 칸막이(①) 및 천장형 마이크(②)를 설치하고, 공기청정기/바이러스 살균기를 운영하며, 1 일 1 회 방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례전파**

KEIT 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과 온라인 평가경험을 공유하였고, 평가위원 공동활용 등의 협력방안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EIT 는 언택트 평가에서 발생하는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며, 산업기술 R&D 조력자(facilitator)로서 선도형 R&D 를 이끔과 동시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기술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사전대비**

KEIT 는 코로나 19 국가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20.2.3)에 따라, 기관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가동하였고, 비상상황에서도 고유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KEIT 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직장폐쇄에 대비하여 기관 핵심 부서 및 업무 분류, 업무 시 감염자 혼재 예방을 위한 교체근무 방안마련, 비상시 대체근로자 확보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였고, 부서별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되,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자, 임산부, 초등학생 이하 자녀 돌봄자를 재택근무 우선 직원으로 배려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지속계획(BCP) 유의사항**

**I. 재택근무**

- 재택근무 인원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본원 직원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대전분원, 서울사무소의 경우도 부서장의 재량에 따라 신속하게 실시
- 재택근무일지는 전산으로 복명하고, 7 일 이내 부서장 승인

**II. 정보보안**

- 재택기간 동안 가상사설망시스템(VPN)을 활용하여 원외 접속 허용
-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 USB 를 사용하되 관리자 승인 필수
- 원외업무시스템에 첨부파일 업로드 시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 후 첨부(PC 방 접속금지)

### Ⅲ. 안전물품 수급 및 보급

- 마스크는 재고 3,000 개, 손소독제는 100 개 수준에서 발주
- 재택근무자 중 노트북 지급(30 대)
- 직원 숙소 내 격리직원의 생필품 조달(라면, 햇반, 생수 등)
- 대구·경북지역 마스크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손세정제 등 코로나 19 물품을 대구시, 대구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도읍에 기탁

### Ⅳ. 대외홍보

-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원내 상황과 국가 정책을 신속하게 제공



### 실제상황

KEIT 는 코로나 19 확산 초기 확진자 발생이 높았던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3 월 2 일, 14 시) 기관 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1 명 발생하여, 즉시 확진자 발생대비 비상 시나리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고,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 확진자 발생 후 당일 경과 조치

#### 1. 14:00 보건당국과 조치사항 협의

- 1339 콜센터, 대구광역시, 대구 동구 보건소(053-662-3201)

- 대구시 환자 급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체 의사결정 필요
- 2차 접촉자를 파악하고,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검진 요청

### 2. 14:45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2차 접촉자 파악

- 2차 접촉자(21명) 즉시 귀가, 자가격리 요청(2주)
- 확진일 기준 14일간의 동선에서 2차 접촉자(원내 직원 및 외부고객 포함)를 파악하여 접촉 사실을 안내하고 증상을 모니터링/개별진료(검사)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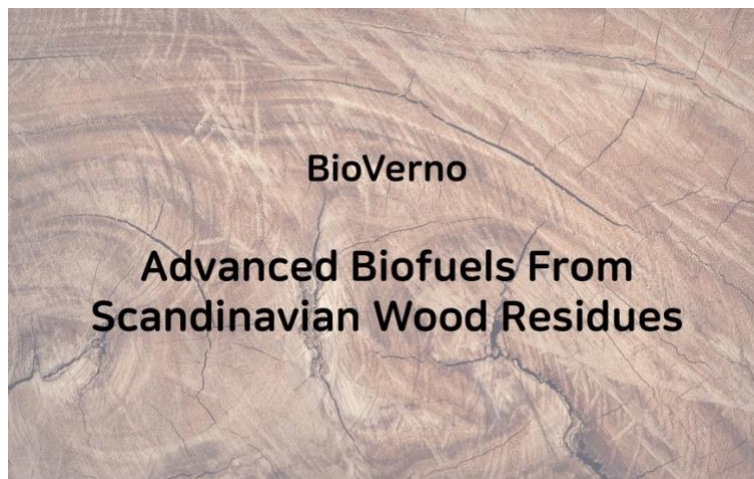
### 3. 16:00 본원폐쇄 및 즉시 방역 실시

- 2일간(확진자 발생 당일 및 다음날) 방역실시 후 재개방 원칙

### 4. 19:00 정보공개

- 보도자료, 홈페이지 팝업, SNS(페이스북)를 통해 확진자 발생 공개

## 2. [SDGs 솔루션] 스칸디나비아 목재 잔류물로 만든 첨단 바이오 연료



### [SDGs 솔루션] 스칸디나비아 목재 잔류물로 만든 첨단 바이오 연료

***BioVerno*는 기존 디젤에 비해 차량 배기관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재생가능한 디젤입니다.**

UPM은 펄프 생산에서 발생하는 목재 잔류물을 디젤 엔진에서 개조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첨단 바이오 연료로 변환하는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UPM은 수소 처리 공정을 사용하고 주 자원으로 폐기물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품이 추가적으로 산림 수확 지역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거나 식량 생산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UPM 바이오 연료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규모의 목재 기반 바이오피이너리를 핀란드에 설립했으며, 2015년에 생산을 시작하여 연간 약 10만 대의 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는 약 1억 2천만 리터의 재생 가능한 디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왜 BioVerno에 주목해야 할까요?

바이오 연료는 처음에 화석연료 기반 차량 연료의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1세대 연료 중 상당수는 온실가스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폐기된 자원을 사용하는 이와 같은 첨단 바이오 연료 기술은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운송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한 에너지



첨단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UPM은 재생가능한 디젤을 제조함으로써 목재 기반 잔류물을 혁신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고객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연료 대안을 제공합니다.

#### 기후 행동



BioVerno는 기존 디젤과 비교할 때 CO2 배출량을 80%가량 줄이고, 배기관 배출량도 감축시킵니다.

[자세히 보기](#)



# UNGC 회원 뉴스

## 1. 포스코, 공급사 선정 때 ESG 고려...친환경 구매도 2 배 늘린다

The logo for POSCO, consisting of the word "posco" in a bold, blue, lowercase sans-serif font.

- 포스코가 그룹차원의 '포스코형 ESG 구매체계' 구축에 나섬
- ESG 관점에서 신규 공급사를 선정하고, 기존의 공급사에 대해선 환경 관련 인증이나 ESG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
- 폐기자원의 재활용(Recycle), 온실가스 저감(Reduce), 자재 재사용(Reuse) 등의 3R 관점에서 친환경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한 관계자는 "공급망 전체에 ESG 경영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공급사들도 최근 화두인 ESG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함

## 2. SK 하이닉스, 작년 사회적 가치 약 5 조 창출 “ESG 강화”



※ SV측정값은 자회사 5개사, SE 4개사 포함 (자회사: 시스템C, 하이닉스, 하이이엔지, 팹메모어, 팹메모어/사회적기업) SE: 행복도시락, 행복한 학교, 행복투게더, 우시콜라넌

- SK 하이닉스기 5 월 10 일, '2020 년 사회적 가치(SV) 창출 실적을 발표함
- 납세, 고용, 배당 등 경제 간접 기여 성과는 5.3 조, 사회(노동·동반성장)와 환경 분야의 비즈니스 사회성과는 -5969 억원, 사회공헌 사회성과는 1,100 억 원 등으로 집계됨
- 하이닉스 관계자는 “사적으로 자원 재활용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단위 생산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감소했으나 절대적인 배출량이 늘었다”며 “환경기술 개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힘

### 3. CJ 대한통운, 'ESG 위원회' 설치...사외이사 전원 참여



- CJ 대한통운이 올해 1분기 IR 자료를 통해 'ESG 위원회' 신설을 발표함
- ESG 경영 목표는 분류인력 확충, 산재보험 가입, 건강검진 지원, 청각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블루택배 등 사회책임(S)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환경 경영의 골자는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 배출량의 감소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로 △친환경 스마트 패키징 개발 및 상용화 △물류센터 활용 초대형 태양광 설치 △페펄트병 업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유니폼 제작 등의 세 가지를 공개함
- CJ 대한통운 측은 "ESG 평가에 기반한 기업투자와 평가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포부를 밝힘



# 회원사 안내

## 1. 신규가입 회원

5 월 4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로이포스
- 씨큐브

## 2. 재가입 회원

5 월 4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0 곳입니다.

## 3. COP/COE 제출회원

5 월 4 일부터 5 월 17 일까지 1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휴맥스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첫 COP 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 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첫 COE 를 제출하고, 이후 매 2 년마다 COE 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 년 후에도 COP/COE 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3. 2021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LG 화학, 한국수력원자력, 롯데쇼핑,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J 대한통운, 포스코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슬로워크, 이알엠코리아,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환경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부산경제진흥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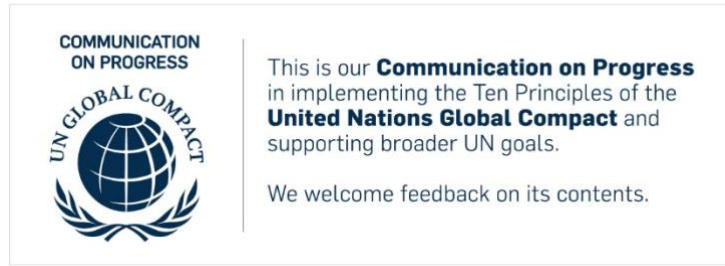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http://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mailto: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http://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